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	2019. 6. 21. / (총 5매)			
배 포 일				
감염병총괄과	과 장	이 동 한	전 화	043-719-7120
	담 당 자	박 광 숙		043-719-7113
바이러스분석과	과 장	최 우 영		043-719-8191
	담 당 자	정 윤 석		043-719-8192

2018-2019절기 인플루엔자 “유행주의보 해제”

- ◇ 5월말 이후 연속 3주간 유행기준(6.3명/외래환자 1,000명) 이하로 감소
- ◇ 그러나, 각종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올바른 손씻기, 기침예절의 생활화 당부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2018년 11월 16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21일(금)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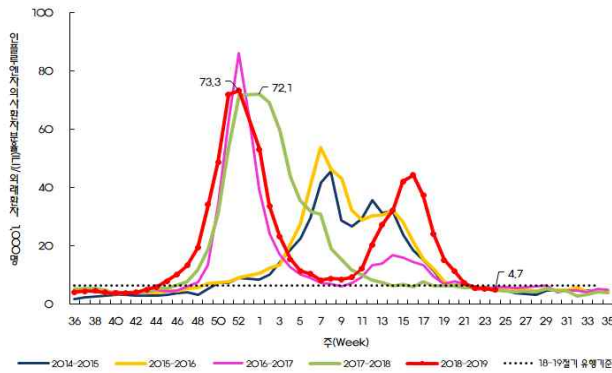
* 2018-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: 6.3명(외래환자 1,000명당)

○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는 제22주(5.26~6.1) 5.5명(외래환자 1,000명당), 제23주(6.2~6.8) 5.1명, 제24주(6.9~6.15) 4.7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(6.3명)보다 낮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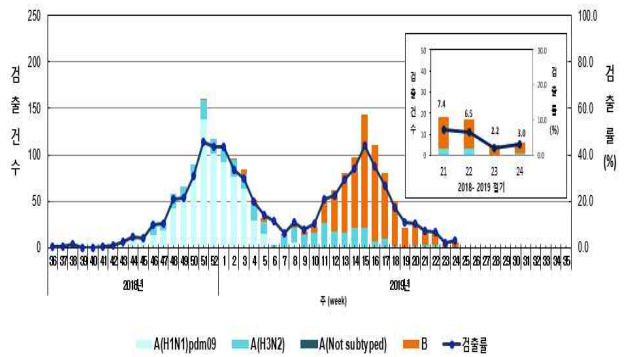
* 의사환자: 38℃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

* 제24주(6.9~6.15)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양성률 3.0%(6건/201건 의뢰)

○ 질병관리본부의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, 6월 19일 자문결과 2018-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21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.



<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>



<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>

□ 2018-2019절기 인플루엔자는 2017-2018 절기에 비하여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였고, 유행초기에는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였으며, 3~4월에는 B형의 봄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다.

○ 2018-2019절기의 정점은 '18년 52주(12.23~12.29) 73.3명이었고, '19년 16주(4.14~4.20) 44.2명으로 두 번째 정점에 도달하여 봄철에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다.

발생분율*(/1,000)

주(Week)	16	17	18	19	20	21	22	23	24
2018-2019절기	44.2	37.3	23.9	15.1	11.3	7.0	5.5	5.1	4.7

*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자료임(200개 기관 참여)

○ 유행주의보 발령시점(2018.11.16.)은 지난절기에 비해 2주 이르고, 종료시점(2019.6.21.)은 4주 느려서 이번절기의 유행기간이 길어졌다.

<표> 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·종료 시점

절기	유행기준 (/1,000명)	유행 주의보 발령 시점 (ILI/1,000명)	유행 주의보 해제 시점(ILI)	정점(ILI/1,000명)	
				1차	2차
2018-2019	6.3	2018.11.16.(7.8)	2019.6.21.(4.7)	73.3(52주)	44.2(16주)
2017-2018	6.6	2017.12.1.(7.7)	2018.5.25.(6.0)	72.1(1주)	-
2016-2017	8.9	2016.12.8.(13.3)	2017.6.2.(6.7)	86.2(52주)	-
2015-2016	11.3	2016.1.4(12.1)	2016.5.27.(5.9)	53.8(7주)	-
2014-2015	12.2	2015.1.22(14.0)	2015.5.21(6.2)	45.5(8주)	35.6(12주)
2013-2014	12.1	2014.1.2(15.3)	2014.5.1(6.4)	64.3(7주)	-
2012-2013	4.0	2013.1.17(4.8)	2013.5.27(2.8)	12.7(9주)	-
2011-2012	3.8	2012.1.5(4.7)	2012.5.25(2.8)	23.1(6주)	20.3(13주)
2010-2011	2.9	2010.10.1(4.48)	미 실시	23.89(52주)	-
2009-2010	2.6	[A(H1N1)pdm09 발생]	미 실시	44.96(45주)	20.45(15주)

- 질병관리본부 정은경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수족구, A형 감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,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 “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의 생활화”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◀ 개인위생수칙 ▶

◇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
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- 외출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·재채기 후, 용변 후 등

◇ 기침예절 실천

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
-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
-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

◇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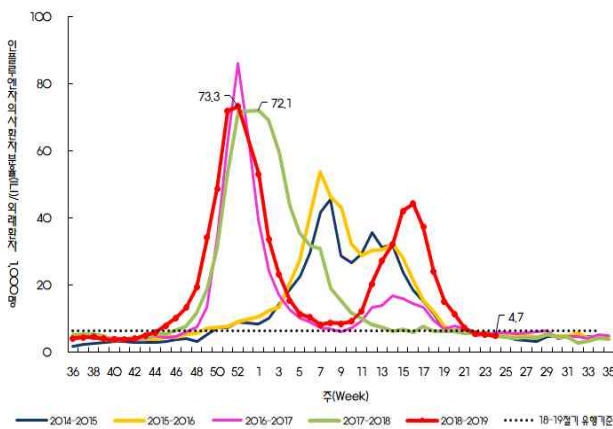
<붙임> 1.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

2.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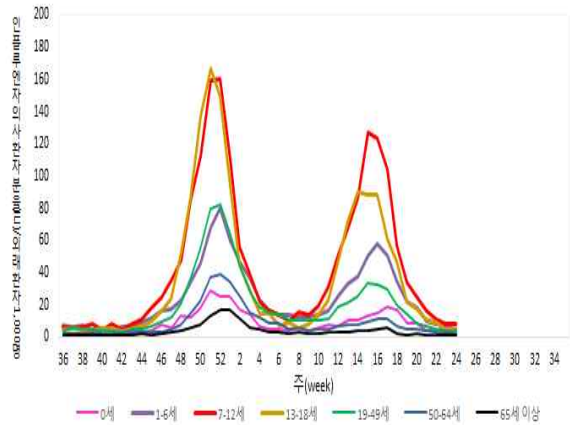
붙임 1

인플루엔자 발생현황

- (임상감시)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(ILI) 분율이 제22주(5.26~6.1) 5.5명(외래환자 1,000명당), 제23주(6.2~6.8) 5.1명, 제24주(6.9~6.15) 4.7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(6.3명)보다 낮은 수준
 -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-12세에서 가장 높았고,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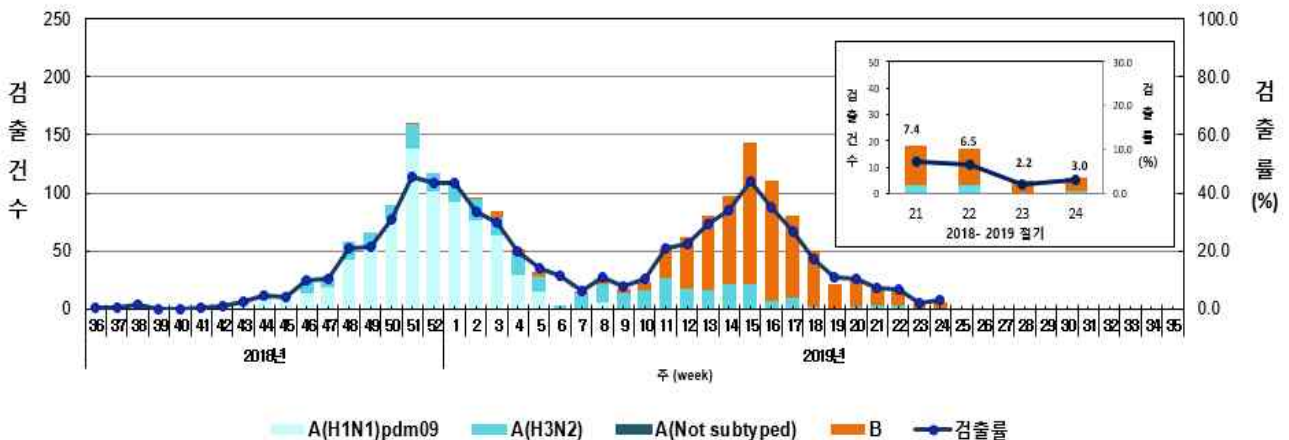


<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>



<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>

- (실험실감시) 2018-2019절기 들어 제24주까지 총 1,802건[A(H1N1)pdm09형 759건, B형 667건, A(H3N2)형 376건의 바이러스 검출



붙임 2

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

□ 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

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

- ①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.
- ② 기침,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, 휴지,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.
- ③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목 아픔, 콧물 등)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
□ 올바른 손씻기(30초 이상) 및 기침예절 지키기



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[올바른 기침예절]

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!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본영양 2018.3.21